

# 국내 광주일보 선정 2011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국제

## 아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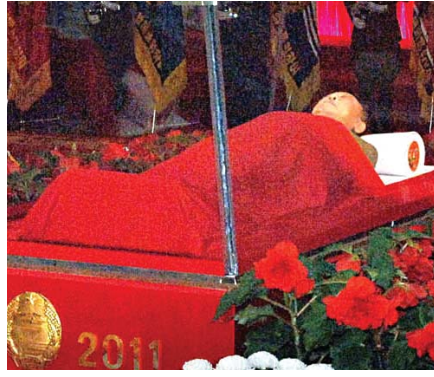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통합을 공식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아권은 민주당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양당 체제로 재편됐다.

순환규 민주당 대표의 민주진보진영 통합 공식 제안으로 시작된 아권통합 작업은 이로써 한 달 반 만에 법적 합당 절차를 끝내게 됐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2012년을 불과 14일 앞둔 지난 17일, 김 국방위원장이 69세를 일기로 급사했다.

이로써 김일성 주석 사후 1998년 국방위원장을 맡으며 김정일 시대를 연 지 13년 만에, 1974년 후계자로 공식화된 지 37년 만에 김 위원장의 철권통치가 막을 내렸다.



## 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

일본 역사상 최대인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가 3월11일 일본 토호쿠 지방을 강타, 2만3500여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또, 쓰나미로 냉각 시스템이 망가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3호기가 폭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방사능 재앙'이 현실화됐다.

## 反 월가 시위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에서 9월 자본주의 모순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득계층 상위 1%에만 유리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비판했다.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도 확산됐다.

## 무역 1조달러 돌파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입을 합산한 교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 9번째로 무역대국에 진입했다.

1962년 당시 무역액은 4억8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05년 5000억 달러에 이어 경제개발 50여 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했다.

## 안철수 열풍과 박원순 당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9월 초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5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지지를 얻었다.

안 원장은 당시 지지율 3%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이사장에게 후보직을 양보, 당선을 도왔다.



## 재스민 혁명

튀니지에 이어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및 아랍권 국가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42년간 장기 집권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10월20일 자신의 고향 시르테에서 사살되고, 튀니지의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했다.

## 유럽발 경제위기

지난해 시작된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로 확산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탈리아, 스페인의 국제 신용등급을 잇달아 강등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유로존 연쇄 부도'와 같은 파국은 면했지만 위기는 진행중이다.

## 북지논쟁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냐를 두고 정치권이 벌인 북지논쟁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당론 채택에서 시작됐으며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선택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주민투표가 투표를 미달로 무산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이 복지 확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 한미FTA 비준안 통과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저지에도 한미 FTA 비준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날치기'에 항의해 최후투표를 타뜨렸다.



## 오사마 빈라덴 사살

9·11동시다발 테러의 배후 조종자이자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이 지난 5월1일 파키스탄 북서부 은신처에서 미군 레이비실의 급습을 받고 사망했다.

최초 발표와는 달리 빈 라덴이 비무장상태에서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었다.

## 세계 인구 70억 돌파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지난 10월 발표한 '2011년 세계인구백서'에서 세계 인구가 지난 11월 1일 기준 7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세계 인구는 지난 1999년 60억명을 돌파한 뒤 12년 만에 10억명이 더 불어났게 됐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5개 부산계열과 보해·도민 등 모두 15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

해당 저축은행에서는 불법대출, 정·관계 로비, 부실감독·검사, 예금·투자자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돼 뱅크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 도가니 충격

지난 2005년 불거졌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한동안 잊혀졌지만, 지난 9월 영화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뒤늦게 행정조치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 재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전학조치하고 학교를 폐쇄시켰다.



## 스티브 잡스 사망

'혁신의 아이콘'이자 이 시대 최고의 경영자로 불리던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췌장암 투병 끝에 10월5일 별세했다.

그의 끊임없는 혁신 행보와 성공 행진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입양아 출신에 대학을 중퇴한 인생역정과 맞물려 더 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러시아 선거부정 시위

러시아의 '실질적인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12월4일 시행된 총선에서 미리 기표된 용지를 투표함에 몰래 넣는 등 온갖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심이 요동쳤다.

수도 모스크바와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수만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 사상조유 정전사태

지난 9월15일 오후 3시11분께 전국 각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총 656만호가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1757만의 약 37%에 이르는 수치다.

정전 당일 예비전력은 24만kW(0.35%)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블랙아웃 직전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 피랍 산호주얼리호 구출

지난 1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산호 주얼리호의 선원들이 거액의 몸값 지급 없이 청해부대의 군사작전으로 전원 구출됐다.

이후 일부 생존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으로 송환되어 아시아권 최초의 해적 재판이 국민참여형 재판으로 진행됐다.



## 태국 대홍수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홍수가 태국을 덮쳤다. 7월25일부터 시작된 홍수는 넉 달 넘게 계속되면서 수도 방콕을 비롯한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수몰됐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유타야(州)도 침수되면서 고대 불교 사원 등 각종 문화유산이 복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

## 중국 G2급부상

올 한 해 초강대국 미국이 경제분야에서 쇠락세를 보인 반면 세계 2대 강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쟈-20을 개발했으며 동아시아 첫 항공모함인 바랴호에 대한 시험운항도 마치는 등 군사력 면에서도 월등한 기량을 선보였다.

##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과 함께!



고아워요

**농지연금제도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부부가 함께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노후보장제도입니다.

**가입조건**

- 연 령 :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영농경력 :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 소유농지 : **총 소유 농지 3만㎡ 이하**

**농지연금, 이래서 좋습니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가 승계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월지연금**

70세에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KF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